

韓國特許制度和 舊韓末의 技術政策

李 承 初
〈辨理士〉

어느 한 時代의 歷史는 그 時代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나가지만, 그 歷史를 後世에 傳하는 것은 歷史家들에 의하여서이며, 傳해진 歷史는 받아들이는 그 時代의 사람들에 의하여 敎訓도 되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人類가 古來로부터 歷史를 記述하고 保全하면서 탐독연구하는 理由는 過去의 歷史를 通하여 그 時代의 華麗했던 榮光은 榮光대로 恥辱은 恥辱대로 同時에 受容하면서 榮光스러웠던 歷史는 感興과 긍지로 받아들이고 恥辱스러웠던 歷史는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反省하고 奮發하면서 수레바퀴처럼 도는 歷史의 本性을 보다 값있게 이어나가는 것이 歷史라는 屬性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特許制度에 관한 歷史도 그런 觀點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特許制度가 처음 마련됐을 때의 경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産業 크기는 經濟와 表裏關係에 있는 制度이기 때문에 그 分野를 떼어놓고는 特許制度를 생각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17世紀 英國의 産業革命의 밑바탕이 됐다는 特許制度를 볼 때 가장 먼저 紡織機, 蒸氣機關 等の 技術이었음

을 상기할 때 우리나라의 特許制度和 技術과의 關係를 생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韓國特許制史’에서도 그런 뜻에서 멀리 三國時代의 發明에 관하여 收錄한 바있으며, 그 찬란했던 産業도 열거했습니다. 三國時代의 것을 技術하게 된 동기는 日本의 “工業所有權制度 100年史”에서 힌트를 얻게된 것입니다. 日本의 “工業所有權制度 100年史”의 第1章 “明治以前の 産業의 保護와 獎勵”에서 日本이 西紀 700年代의 技術導入과 普及에 대한 內容을 제 5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收錄돼 있었던 것입니다.

「朝廷은 中國大陸과 朝鮮의 技術을 我國에 定着시키기 위하여 腐心했다. 百濟로부터 王族이나 技術者의 亡命을 認定해 技術者로서의 特權的 集團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朝廷이 技術의 普及에 盡力한 事例 두가지를 들겠다. 그 하나는 元明天皇 和銅 4年(711年) 閏六月丁巳 朝廷은 排文師(あやとりし)를 諸侯國에 派遣하여 처음으로 錦綾을 짜는(織) 법을 배워 익혔다는 것이다.(續日本紀卷 5). 그리하여 그以後 各國에서 調라 하여 金陵을 貢納시키도록 하였다.(이와

같은 事例는 明治 11年(1878)에 黒川眞賴가 發表한 「工藝志科」에도 정성스럽게 收錄돼 있다). 또 하나의 例는 錦(木錦)의 普及例다 植物性的인 錦은 中國에서는 1世紀의 前漢書에 記載돼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인데, 栽培된 것은 11世紀項의 이야기이다. 한편 日本에 있어서는 魏志倭人傳 中에 木錦이 쓰여졌다고 하는 記述이 있으나, 木錦이 日本의 史書에 最初로 나타난 것은 延曆 18年(799)의 일이다.

三河國에 漂着한 崑崙人(마래인)이 가지고 온 木錦의 種子를 各國司에 配布해 栽培시켰다. 그 結果 延喜式(976完成) 中의 主計式上에서는 「木錦」「白疊」疊錦 등의 形態도 木錦을 中男作物(調)이라하여 貢納한 나라가 伊勢, 遠江, 伊豆 武藏... 등 20個國에 達하고 있다. 이 以外에도 賦役令 中의 東 木錦 安藝木錦은 有名했다. 이 錦栽培는 그후 中斷돼 훨씬 뒤인 後元祿때 中國에서 輸入된 技術로 다시 栽培하기 시작한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例로 보아서 이미 8世紀頃에 全國에 걸친 産業의 獎勵가 行해졌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文化가 日本에

傳來됐다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問題는 過去가 아니라 現在가 더 重要하다는 것입니다. 70年代에 있어서는 우리 技術이 日本에 傳來됐는데 왜 지금은 이런상태인가? 분명 歷史는 그 時代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룩되어진다고 말했듯이 어느 時代에서 잘못된 歷史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反面 이제라도 反省과 奮發로 잘못된 歷史, 即, 恥辱의 歷史를 榮光스럽고 긍지로운 歷史로 바꾸어 나가는 이 時代의 歷史創造者라는 見地에서 볼 때 舊韓末의 技術導入과 普及에 대하여 어떤 曲折이 있었으며 어떤 狀態로 되어져 왔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發展過程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舊韓末 開港以來 開化派(朴珪壽, 吳慶錫, 劉大致等)에 의하여 新技術의 導入과 普及을 추진하면서 鎖國主義者들이 내세우는 “斥邪衛正論”에 따라 西洋을 洋夷로 西洋의 近代商品을 “奇技淫攻之論”으로 西洋技術을 “曲技”로 표현하면서 朱子學에 입각한 “正德”을 내세웠던 것을 “利用厚生과 富國利民”의 政策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開化論者들은 이 利用厚生의 개념이 技術收容을 위한 논리정연한 이론으로 체계화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崔漢綺같은 이는 西洋 技術收容의

철학적 기초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기술수용론을 전개 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技術收容策을 高宗도 동감하여 1882년의 池錫永 先生의 特許制度實施에 대한 상소를 받아들여 그 移行을 內閣에 지시하면서 뒤이어 技術政策을 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施策中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882年 特許制度施行을 命한 다음 해인 1883년에는 처음으로 民間人에게 증기선 구입을 허용하였고 博文局을 설치하여 근대인쇄기술을 도입하였으며, 漢城旬報에도 西洋 科學技術을 소개하면서 新技術의 必要性을 역설하였습니다.

또 武器製造官廳인 “機器局”을 설치하고 중국인 무기기술자 4인을 초빙하고 무기도 직접 도입하여 무기제조공장을 세우고 무기제조의 시험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2. 다음해인 1884년에는 “잠사공사”를 설치하고 일본과 미국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케하였고, 처음으로 蒸氣發電機 1대를 미국의 에디슨회사에서 도입하여 宮(乾清宮)에 설치하였고, 蒸氣船도 세척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3. 1885년에는 織造局과 紙造局을 세워서 베짜고 종이를 만들려고 했고, 電報局과 種牧局을 세웠으며 農務牧畜試驗場을 세워서 농사와 목축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近代의 鑛山

機械를 도입하는 한편 鑛務局도 세웠으며, 담배와 술에 관한 卷煙局과 釀造局도 세웠다고 합니다.

4. 1888년에는 本格的으로 紡織機械를 多數 輸入하였고 紡織技術者도 초빙하여 紡織業에 손을 댔다고합니다. 한편 鑛山에서 쓰이는 採鑛機械를 輸入하고 技術者와 技師들도 초빙하여 採鑛에도 힘써왔다고 합니다.

5. 1889년부터 東學亂이 나고 甲午更張이 일어나던 1894년까지도 어려운 政局에서도 利用厚生과 富國利民을 위한 길로서 新技術의 導入과 普及을 위하여 많은 政策을 펴나갔던 것입니다. 漁業發展을 도모하고자 漁採機械도 들여왔고 機器局에서는 製藥學徒를 日本에 파견하여 製藥技術을 습득케하였고 民間沙器匠人工場(一種의 도지기)도 설립하였고 종이만드는 機械와 蒸氣機關船도 들여왔다고 합니다.

특히 特許制度和 直接 關聯이 있는 事項으로 당시의 官制개혁과 特許에 관한 行事を 소개하면 1892年 12월에 統理 機務衛阿에 利用(技術開發)을 관장하는 기구로 “利用司”를 설치한 바 있으며, 1894年 6월에는 “利用司”라는 名稱을 獎勵局으로 고치고 관장업무도 “利用”이란 말 대신에 “殖産의 獎勵興業 및 專賣特許”로 진일보한 것입니다. 또한 韓國의 近代法典의 효시라고 할 <21p에서 계속>